

#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현세에 적합한 믿음의 교육장 성심여고를 찾아서



이번 8월호부터는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현재 일선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중·고등학교 양호실을 기자가 직접 탐방 입체취재합니다. 독자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지면을 활애하여 보건교육의 현장을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 성심여고의 보건교육을 찾아서

7월의 무더위가 자그마한 구름한점의 장난기에 산산한 바람이 불어올때 기자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에 소재한 성심여고를 찾았다.

입구에서 맞이해주는 성모마리아상의 온화한미소는 기자의 마음을 몽클하게 해준다.

현관문에서 맞이해주는 성심여고의 박 문희양호선생님, 첫인상에서 기자는 깔끔하고, 섬세한 성격을 느낄수 있었다.

성심여고의 보건교육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자랑할만한 일이라도 있으시다면? —

『저희 성심여고는 1957년성녀 마들렌 소피바라 수녀님이 창설하셨지요. 바라 수녀님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함을 살려 몸, 마음, 지식의 고른 성장을 이루어 사랑의 큰 힘을 기울이자』고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어요. 그래서 저의 학교는 체육시간, 특별활동시간, 교련시간 등을 통해서 보건교육과 개인위생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선생님들이 학

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자랑거리라면 양호반학생들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고, 또한 저희 양호반 학생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전학을 다녀온 이후 더욱 더 보건교육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스스로 다른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교육목표에다 여러시간을 활용하고, 양호반학생들의 자발적인 전임주의식 보건교육등, 성심여고는 조직적인 체계의 보건교육현장이었다.

기자는 입구에서 들어서면서부터 보고 느낀 학교의 깨끗함, 청결함 그리고 셀 수없는 많은 수목들과 함께 연결시켜 보았다.

현재 기생충 감염의 저하와,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에 대해서 일선의 보건위생 담당자로서 느낀것은 어떠 신지요? — 『많은 학생들이 기생충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같아요. 문화수준, 생활수준등의 향상과 좋은 약등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생충은 이름그대로 기생충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1·2회 정기검사는 아직까지는 꼭필요하다고 생각해요.』 寄協에서는 연일 정기적인 1.2회 검사를 강조해온 바 그 중요성이 일선 실무자의 입으로 통헤져 알려질때 寄協의 숨은 공로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자는 재인식 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방대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 양호실을 찾고있는 학생은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러한 학생들중 의지력이 부족해서 아픈 학생, 몸이 아픈 학생등 여러 학생의 분류가 있지만,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때문에 자기의 건강보다는 대학이라는 거대한 철문을 뚫으려고만 노력하지요. 저희 개인적인 바램으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보다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이해시킬수 있도록 홍보해주셨으면 하고, 심전도검사, 간염검사, 혈액검사등 간단한 검사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검사해주었으면 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박문희 양호선생의 얼굴에서는 여자의 섬세함보다는 양호실의 책임자로서 어떤 철학적인 결의마저 보는듯하여 기자의 마음이 한결 흐뭇해 지기도 한다.

현재 각 학교에는 양호실이 있습니다. 성심여고의 양호실이 타학교에 비해서 자랑할만한 일이라도 있으시다면? — 『저희 성심여고는 知的가치개발을 통한 인류문화 창조 사업에 기여 한다는 학문

적 교육의 이념이 있지요.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호반 학생들의 모임이 있어 각 학급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양호반학생들의 손에서 먼저 처리가 될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사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잘되어서 양호실의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서너평남짓한 양호실 베드와 잘 정돈된 각종 의료장비함 그리고 각종 의화상식을 알수있는 책꽂이등, 박문희 양호선생님의 첫인상처럼 섬세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성심여고의 양호실의 전경이 기자의 머리속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박문희 양호선생님은 1957년도에 발령받아 지금까지 28년간이란 세월을 성심여고 양호실에서 보냈다. 강산이 세번번한다는 세월동안 박문희양호선생님의 손길을 거친 성심인들은 지금쯤 아기의 어머니로, 사회의 일꾼으로 변한 많은성인들은 오늘도 박문희 양호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원양어선을 타는 부군 남흥우씨와 딸 지연양과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박문희 양호선생님 지금 이시간까지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리라.

(오 일민기자)

## 토막상식 ●

### 伏中위생 營養管理 요령

7월은 연중 가장 무더운 달.

건강 · 위생 · 장마대비 · 방학중 자녀지도 등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복터위에 입맛을 잃기쉬우므로 산뜻한 음식과 음료 과일외 준비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콜라 · 사이다 · 주수등 마개를 뜯어 먹다 남은 음료가 있으면 모양있는 용기에 담아 냉동, 사베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준다.

○...날씨가 더울때에 너무 진한 화장을 피하고 얼음을 거즈에 싸서 얼굴을 두드린 후 얇게 화장을 하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름철 피부관리의 기본은 청결유지와 강한 햇빛에의 오랜 노출을 피하는

것.

○...땀띠와 헤충이 어린이의 부드러운 피부를 해칠 수 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은 면직이나 마직으로 입히며 헤충에 물렸을 때는 옥시폴로 닦아준다.

○...화장실은 대개 크레졸원액에 물을뭇게타서 청소를 하는데 담배꽂초를 이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담배꽂초를 모아두었다가 이것을 섭씨60도 정도의 같은 분량의 물에담가 니코틴을 뺀다. 이렇게 만든 담배꽂초와 우러난물을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뿌려두면 벌레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한달에 두번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지속된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나서 면도가 잘 안된다. 이럴때 베이비파우더를 얼굴에 조금 바르고 면도를 하면 원만하게 되고 땀으로 면도기가 상할 염려도 없다. 파우더가 없으면 세수한직후 면도하면 괜찮다.